



미네르바 신드롬과 '시민 지성'의 조건 세계화와 정보화의 교차로에서* **

최선정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객원연구원 sjchoivr@gmail.com

이 논문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길목에서 발생했던 '미네르바 신드롬'을 세계화된 경제가 야기하는 불확실성과 인터넷 이후 변화되어 가는 지식생산체계의 교차라는 측면에서 검토한다. 미네르바가 구축한 가상적 정체성과 그에 대한 다른 네티즌들의 평가에 초점을 맞추어 그의 초기 게시물과 네티즌 댓글을 페어클라우(Fairclough)의 '비판적 담론분석'을 통해 분석했다. 미네르바는 전통적인 지식체계에서 유지되는 최소한의 합리성과, 경제 상황에 대한 총체적 전망의 제공, 일반시민들에 대한 연민과 애정의 표출, 현실적인 생존에 도움이 되는 정보의 공유 등을 통해서 독자들의 인정과 사회적 권위를 획득해 나갔음을 밝혀냈다. 이러한 결과는 세계화 이후 인터넷 지식생산 체계에서 불가피하게 변화해 가는 지식인의 조건을 시사해 준다.

KEYWORDS 미네르바 신드롬 • 시민지성 • 집단지성 • 논객
• 인터넷 문화 • 외환위기 • 경제위기 • 세계화

* 이 연구는 2010년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연구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 이 논문은 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11년도 봄철정기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미네르바 신드롬: 인터넷과 지식, 지식인"을 대폭 수정, 보완한 논문입니다.

1. 들어가며

사회적 담론의 공간으로서 인터넷과 관련해서 많은 이론적, 현실적 논점들이 존재해 왔지만, 미네르바 신드롬만큼 대중적, 학술적 관심과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사건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 ‘미네르바’는 2008년 6월 중순부터 다음 아고라 경제토론폰방에 세계 금융위기를 예견하는 글을 올리기 시작했다. 그는 쉬운 경제이론과 통계 등을 적절하게 버무려서 정부의 경제 예측과 처방, 언론의 보도 등을 신랄하게 비판해 나갔다. 특히 2008년 8월말 산업은행이 인수하려 했던 미국 리만 브라더스사의 부도를 정확히 예고하면서 9월 중순경 일부 오프라인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그는 ‘시민 논객’(한겨레신문, 2008. 9. 17), ‘시민 지성’(경향신문, 2008. 9. 19), ‘온라인 경제대통령’(머니투데이, 2008. 10. 26) 등의 호칭을 얻었다.

미네르바가 다시 이슈로 떠오른 것은 2008년 11월 중순이었다. 〈매일경제〉 등 일부 언론이 그에 대한 사법적 조치의 가능성을 전하기 시작했고 비슷한 시기에 KBS TV의 〈생방송 시사 360〉(2008. 11. 17)이 ‘미네르바 신드롬’의 문제점을 다루었다. 결국 ‘미네르바’는 2009년 1월 8일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긴급체포되었다.

그의 체포는 적어도 두 가지 측면에서 큰 이슈가 되었다. 한편으로는 인터넷상에서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정치적, 법적 논쟁이 유발되었고 학계의 관심 역시 이 부분에 집중되었다(가령, 우지숙, 2009). 다른 한편에서는 온라인 공간, 특히 미네르바가 활동했던 다음 아고라 경제토론폰방을 중심으로 해박한 경제지식과 고급 정보로 무장한 ‘미네르바’와 30대 전문대졸 무직자로 알려진 ‘박대성’의 동일성을 둘러싼 논쟁이 오랜 기간 지속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논의의 흐름 속에서 ‘미네르바 신드롬’ 자체가 가지는 사회적, 문화적 함의에 대한 학술적 관심이 빛을 잃었다는 것이다. 미네르바 사건의 독특함은 경제 위기라는 특정한 국면을 배경으로 익명적인 인터넷 게시판에서 그가 받은 주목과 찬사, 혹은 ‘애정’에서 비롯되었

다. 당시 다음 아고라 경방(경제토론폰방)에는 다수의 필자들이 존재했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뛰어난 분석력을 보여주었다. 이 중에는 후에 경제 위기에 대한 책을 출판하고 오프라인 세계로 뛰쳐나온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미네르바만큼 이슈거리를 제공하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네티즌들이 왜 한 평범한 인터넷 논객의 글에 환호하게 되었는가?

어떤 면에서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은 전문적인 정보와 지식, 분석을 전달하거나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문젯거리일 수 있다. 긴요한 정보와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익명 게시판에서 자판을 두들기고 있는 그/그녀가 과연 이 분야에 대해 정말 잘 알고 있는 사람인가를 끊임없이 자문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글을 쓰는 사람은 정당하고 믿을만한 지식의 담지체로서 스스로를 구성하고 인정받아야만 한다.

이 새로운 지식 생산과 소비의 조건 속에서 미네르바는 일종의 전문가로서 활동했고 신뢰와 명성을 획득했으며 추종자들을 양산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그는 그 자신의 이미지를 어떻게 구축했으며 사람들은 그에게 어떤 정체성을 부여했는가? 사람들은 왜 그의 글을 신뢰했는가? 무명의 네티즌이 경제 전문가로, 또 ‘시민 지성’으로 변화해간 이 특수한 여정은 IMF체제 이후의 한국사회와 인터넷 문화에서 ‘지식’과 ‘지식인’의 조건에 대해 어떠한 시사점을 가지는가?

이 논문은 미네르바가 오프라인 언론에 등장하기 이전, 다음 아고라에 게시했던 초기 글들과 이에 대한 아고라 이용자들의 댓글을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질문들을 탐색하고자 한다. 초점은 ‘온라인 스타 논객’으로서 미네르바의 형성 과정에 맞춰질 것이다. ‘미네르바’가 제공한 정보와 분석이 정확한가, 구속된 그가 ‘진짜’ 미네르바인가 등의 질문은 이 논문의 범위를 넘어선다. 이 논문은 그가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구축해나가는가, 그리고 그가 게시한 정보와 지식, 견해에 대해 ‘아고리언’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평가하고, 토론하고, 비판하는가에 주목할 것이다.

2. 경제 위기, 불안, 그리고 인터넷

미네르바 신드롬은 ① 2008년 말 세계 금융위기의 발발이라는 특정 국면에 ② 다음 아고라 경제 토론방이라는 특수한 담론 공간에서 발생한 사회적 사건이다. 이 가운데 세계금융위기, 혹은 보다 일반적으로 경제 상황에 대한 관심은 1990년대 말 IMF체제 이후 공고화된 (경제적) 세계화의 부정적 결과들과 밀접히 맞물려 있다. 다른 한편으로 다음 아고라 경제 토론방에서 특정한 토론자가 인정과 명망을 획득하는 과정은 한국 인터넷에서 지식(인)이 생산되어온 독특한 과정들을 고려할 때만 이해 가능하다. 따라서 미네르바의 글과 네티즌들의 반응을 분석하기에 앞서 이 두 가지 배경이 이 사건에 대해 갖는 함의를 기존의 논의들을 통해 검토하고자 한다.

1) IMF 체제 이후의 삶: 부정적 세계화와 불안의 역학

경제적 생존은 항상 중요한 문제였지만 한국사회에서 일반 시민이 이 문제에 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게 만든 최근의 계기는 1997년 외환위기와 이에 따른 IMF 구제 금융의 도입일 것이다. 이 두 사건은 ‘한강의 기적’으로 일컬어졌던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뿌리째 뒤흔들어 놓았다(이현훈, 2000).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김대중 정부는 급속한 안정화와 근본적인 구조 개혁, 금융·자본 시장 개방 등 IMF 측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정진영, 2000; 윤상우, 2009).

‘구조조정’의 사회적 비용은 참담했다. 경기침체에 따른 인력 감축과 기업도산은 1998년 한 해 동안 100만 명이 넘는 새로운 실업자들을 양산했다. 또한 이후 정부와 기업에 의해 추동된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급격한 증가를 야기했다(정진영, *ibid.*, pp. 85~85). 따라서 1999년 11월 김대중 정부가 공식적으로 ‘극복’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IMF’와 ‘외환위기’에 부착된 고통과 공포는 12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들 마음 속 깊이 남아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일반화되어 있는 경제 부문에 대한 관심을 단순히 기억 탓으로 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돌이켜보면, 1997년 외환 위기는 2008년 금융위기와 마찬가지로 (부정적) 세계화의 소산이었다. 우리의 외환위기는 사실 동아시아 외환위기의 일부였고, 그런 탓에 국제자본시장의 변동으로부터 한국식 경제성장 모델의 취약성, 동아시아 자본주의의 실패, 국내 금융기관 및 민간기업의 도덕적 해이, 동아시아 외환위기에 대한 정부의 잘못된 대응, 미국 정부 및 유대계 자본의 음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인들이 환란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다(이현훈, 2000). 여기서 위기는 개별 국가의 정책 실패와 경제구조의 취약성만큼이나 국경을 넘나드는 투기자본과 다른 국가들의 정치·경제적 변화에 연동된다.

이렇듯 세계화가 강요하는 개방성은 “자신의 여정을 확고하게 결정할 능력이 없고 일단 선택해도 그 여정을 지킬 능력이 없는 무기력한 사회(Bauman, 2007/2010, 18쪽)”, “‘운명’의 횡포에 무방비로 노출된 사회(앞의 책, 19쪽)”를 양산한다. 이 ‘열린사회’에서 불확실성과 공포는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면이 된다. 게다가 세계화는 그 반대급부로서 전 지구적 차원에서 ‘지역화’를, 공간 고착화의 과정을 출현시킨다. 어떤 이들은 완전하고도 진정하게 ‘세계적’이 되지만, 보다 많은 사람들은 세계화가 게임의 규칙으로 강요되는 세상에서 지역화된 존재로 남아 사회적 박탈과 쇠락을 겪게 되는 것이다(Bauman, 1998/2003).

이러한 측면에서 IMF체제 이후 한국 사회에 견실하게 뿌리내린 신자유주의적 질서와 세계화의 이데올로기가 그것에 걸맞지 않은 대다수의 사람들의 삶에 어떤 그늘을 드리웠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외환위기 이후 국내총생산, 외환보유고, 명목경제성장률 등 외형적 경제성장률과 관련된 지표들은 비교적 빠르게 개선되었지만 경제 불평등 지표들은 악화되었고 계급, 지역, 세대 등의 주요 범주들을 중심으로 부와 소득의 양극화가 확대되었다(김문조, 2008; 신광영, 2009; 이상봉, 2011) 이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실질적인 경제적 고통과 불안정을 경험했으며 이러

한 상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제 상황에 대한 정보와 지식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갈증은 이해할 만한 것이 된다. 여기에 덧붙여 1997년 당시 정부와 언론, 경제전문가들은 외환위기가 발발하기 불과 며칠 전까지도 위기의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당시 외환위기를 예측할 수 없었다는 사실은 이론의 실패로 간주되었고 한국 지식인의 태만과 무능에 대한 비판과 자성이 한동안 이어졌다(가령, 김동춘, 1998; 손호철, 1998; 송호근, 1998; 전상인, 2000). 몇몇 진보적 지식인들이 원론적인 수준에서 재벌체제와 경제적 낙관론을 비판했고 일부 정부연구소와 연구자들이 위험을 사전에 감지했지만 학계와 무관한 보통 사람들이 이를 알기는 어려웠다. 주요 언론 역시 1990년대 중반 이후 김영삼 정부가 추진했던 ‘세계화’ 정책이나 한국 경제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알리는 데 소홀했다(김동춘, 1998). 따라서 일반 시민이 이러한 파국에 대비할 길은 애당초 봉쇄되었다.

이러한 면에서 정보 질서에서 권력은 착취의 원칙보다는 배제의 원칙으로부터 작동한다는 래쉬(Lash, 2002)의 지적은 상당히 시사적이다. 그는 정보 문화가 ‘측근 집단(loop)’으로부터, 정보의 수단들로부터,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의 세계적 흐름들로부터의 배제에 의존해서 작동한다고 보았다. 바우만(1998/2003) 역시 세계화의 시대에 지역에 속박된 이들은 의미를 생성하고 결정할 능력을 가질 수 없으며, 따라서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해석과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감각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외환위기 당시 침묵했던 언론과 정부, 경제전문가들은 이후 환란의 고통스러운 기억과 불안을 확대재생산하는 데 일조했다. 1998년 초 처음 언론에 선을 보인 이후 ‘제2의 외환위기’는 임박한 경제적 재앙을 가리키는 일종의 상투어구가 되었다. 노동쟁의, 환율하락, 가계부채, 대기업 분식회계, 복핵문제, 이라크전쟁, 유가급등, 신용카드 대란, 한미무역협정 등 얼핏 공통점을 찾기 어려워 보이는 다양한 이슈들이 이 불길한 단어와 결합됨으로써 명징하고도 치명적인 의미를

부여받았다. 재앙의 위협은 상존하고(혹은 상존하는 듯 보이고), 불확실성과 공포는 반복적으로 환기된다.

이렇게 해서 기억과 현실은 하나로 융합되고 현재의 불안은 고통스러운 과거에서 자신의 존립 근거를 발견한다. 외환위기로 상징되는 생존의 위협은 항상 우리 곁에 존재하는데, 그것은 언론과 정부, 전문가들의 담론 속에서 간헐적으로 환기되고 우리 자신의 기억 속에서 확인되는 떨치기 어려운 과거일 뿐 아니라, IMF 이후 점점 더 ‘열린사회’가 되어가는 한국에 불박인 채 살아가야 하는 대다수의 지역화된 사람들을 움직이는, 극히 현실적인 삶의 조건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세계적인 경제의 흐름과 위기의 가능성을 읽어낼 수 없는, 정보로부터 배제된 우리의 무지로 인해 더욱 가중된다.

2) 인터넷과 대안적 지식체계의 등장: 논객, 집단지성, 시민지성

공교롭게도 외환위기가 발발했던 1997년부터 약 5년간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은 급격히 증가했다. 이러한 변화의 주요한 결과 중 하나는 온라인에서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슈에 대해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고 논쟁을 벌이며 여론을 형성해 나가는 일반 시민의 등장이었다. 이들은 활동 시기와 영역에 따라 ‘논객’(민경배, 2007; 이기형, 2004; 장우영, 2005), ‘폐인’(민경배, 2007), ‘비판적 담론 공중’(이준용, 2007; 2009)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조명되었으나 대체로 인터넷 게시판에서 글을 읽고 쓰는 사람들로서 정치인, 언론인, 지식인들의 권위에 이의를 제기하고 대안적 해석을 제공하며 주류 매체에 대항하는 ‘대안적 공론장(들)’을 형성한다고 분석되었다.

지식 생산 시스템의 측면에서 이들은 기존의 폐쇄적 지식생산과정에서 소외되었다가 인터넷을 통해 활로를 찾은 잠재적 지식생산자들로서 자리매김되어 왔다. 그 중 가장 주목받았던 것은 ‘논객’과 ‘집단지성’이다.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에 활동했던 ‘논객’은 제도적으로 승

인된 학위나 자격증 없이 논리와 글 솜씨만으로 네티즌들의 인정과 사회적 권위를 획득하는 데 성공한 사이버 공간의 새로운 지식 엘리트층으로 개념화되었다(민경배, 2007; 장우영, 2005). 1990년대 PC통신 정치토론 게시판에서 활동했던 그들은 이후 인터넷으로 자리를 옮겨 <판지일보>를 위시한 다양한 정치 웹진들과 논객사이트들에서 당파적이고 대중적인 글쓰기 방식을 선보였다. 또한 이들의 독자인 ‘폐인’과 ‘눈팅족’은 정치적, 사회적 현안에 대한 대안적 정보와 분석을 제공받는 지식의 소비자이자 댓글을 통해 그 진위와 타당성을 검증하는 평가자로서 기능했다.

반면, 2000년대 후반 인터넷 문화에서 지식생산과 관련된 문제들은 주로 ‘집단지성’ 개념을 통해서 논의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네이버 ‘지식iN’이나 트위터 같은 소셜 미디어의 급속한 성장과도 관계가 있지만, 2008년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를 위한 촛불집회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당시 집회 참여자들은 “평범한 시민들 개개인의 지식과 지혜가 협력하고 경쟁하는 과정에서 뛰어나고 합리적인 집단적 지혜가 형성된다는 의미”(김창남, 2010)에서 ‘집단지성’의 한 사례로 주목받았으며 인터넷에서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주류 언론과 전문가들이 배타적으로 향유하던 사회적 권위와 담론권력에 도전한다고 평가되었다(김종영, 2011; 이항우, 2009).

하지만 ‘집단지성’ 개념을 한국 인터넷 문화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몇 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첫째, 이러한 논의들은 대체로 ‘집단지성’을 대중들의 지혜와 등치시키면서 집단지성과 ‘전문가’ 사이에 허구적인 대립을 상징하는 경향이 있다(Tredinnick, 2008). 그러나 온라인 지식생산은 일반 시민들 간의 수평적인 정보 공유와 의견 교환 뿐 아니라, 사회적 권위를 지닌 기존의 전문가들, 혹은 자격증을 소지하지는 못했으나 여러 가지 경로로 해당 분야에 대한 정보와 전문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잠재적 전문가들의 기여로 이루어진다. ‘집단지성’의 현시로 간주되었던 2008년 미국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조차도 과학, 법률, 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연대를 통해 뒷받침되었다. 이 대항적 전문가들은 실

명으로, 혹은 익명으로, 정부와 관료집단의 논리에 반하는 대항 논리를 생산해 냄으로써 촛불집회에 정당성을 부여했다(김종영, 2011).

둘째, 한국의 온라인 지식생산시스템은 협업적 집단지성 모델보다는 지식 공동체 모델에 더 가깝다(김상배, 2010). 레비(Lévy, 1997)의 집단지성은 “아무도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하고, 누구나 뭔가를 알고 있으며, 모든 지식은 인류에 속한다”(p. 20)는 가정에서 출발하는, “끊임없이 향상되고, 실시간으로 조정되며, 기량을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게 만드는, 보편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지성의 한 형태”이다(Levy, 1997, p. xxviii).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는 위키피디아이다. 이 온라인 백과사전은 ‘누구든 편집할 수 있다’는 정책을 채택함으로써 연구자와 일반인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고 전문지식에 대한 근본적인 전제들을 재고하도록 만든다. 그것은 진실이 대화로부터 등장하며, 전문가의 권위보다는 신뢰와 검증에 기반을 둔 보통사람들의 합의가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한다는 ‘대화적 전문지식’(Hartelius, 2010)의 모델에 기반을 둬으로써 전통적인 ‘독백적’ 전문지식에 도전하고 학력주의를 거부한다.

하지만 우리에게 친숙한 네이버 지식iN이나 다음 아고라 같은 지식 공동체들은 이와 다른 논리로 움직인다. 위키피디아가 개별적인 기여자들의 흔적을 지움으로써 정보와 지식 자체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반면, 지식공동체들은 게시물과 댓글들을 고스란히 보존함으로써 참여자 개인의 기여가 전면에 드러나게 만든다(김상배, 2010; 황주성·최서영, 2010). 전자가 참여자들 상호 간의 대화와 토론, 교정을 통해 지식의 완결성을 높여나가는 데 주력하는 반면, 후자는 이미 완결된 글을 놓고 다른 성원들이 그 타당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고 검증하는 형태를 취한다. 결과적으로 지식공동체의 참여자들은 PC통신 시절의 ‘논객’과 마찬가지로 비록 필명일망정 자신의 ‘이름’을 걸고 글을 쓰고 다른 이들의 평가에 종속되는 경험을 반복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평판을, 때로는 명성을 획득하게 된다.

미네르바 신드롬은 이러한 한국 인터넷 문화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만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미네르바를 지칭하는 용어로 등

장했던 ‘시민지성’은 ‘공식적인 교육제도에 의해 자격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인정을 통해 특정 분야의 지식인으로서 사회적 권위와 영향력을 획득한 시민 논객’¹⁾을 의미하는 신조어로서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 집단지성 모델이 기여자들을 익명적인 존재로 환원시킴으로써 지식생산에서 위계구조를 말소시키는 것과 달리, 평가체계에 기초를 둔 지식 공동체 모델은 기여자들 간에 새로운 위계를 만들어 낸다. 여기서 지식은 여전히, 그러나 다른 유형의 여과장치와 방식을 통해 인터넷 상에서 권력으로 환전된다. 이 경우 문제의 초점은 위계의 소멸이 아니라, 지식생산과 관련된 기존 위계들 중 어떤 것이 살아남고, 어떠한 것이 재구성되는가이다. 요컨대 인터넷 상에서 ‘시민지성’으로 인정받는 것을 가능케 하는 조건들이 무엇인지 탐색할 필요가 있다.

3. 연구의 주제와 비판적 담론 분석

이 논문은 미네르바 신드롬을 세계화의 부정적 결과들과 대안적 지식체계로서 인터넷의 등장이라는 두 가지 커다란 한국 사회의 변화가 맞물리면서 발생한 전범적인 사건으로서 다루고자 한다. 외환위기 이후 세계화와 신자유주의화의 흐름 속에서 정보에서 배제되고 지역화된 사람들은 막대한 불확실성과 불안, 생존에 대한 공포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이들이 경제적 상황에 대한 정보와 해석을 다음 아고라와 같은 인터넷 지식 공동체에서 찾고자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미네르바는 이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자신을 경제 전문가로서 구성해 나갔으며, 이들은 그

1 ‘시민지성’은 2008년 9월 18일 경향신문의 기사 “아고라 경제논객 ‘미네르바’ 누구냐? 화제”에서 서울대 김상중 교수에 의해 미네르바를 지칭하는 용어로 처음 등장했다. 당시 이 단어는 시민논객의 의미로 사용된 듯 보이나 이후 대중지성, 시민들의 집단지성, 다음 아고리언(아고라 이용자 집단), 네티즌 일반을 지시하는 폭넓은 의미를 취하게 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집단지성에 대비되는 새로운 유형의 지식인을 지칭하는 용어로 이를 전용하고자 한다.

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 한국사회에 대해, 그리고 인터넷 문화에서 지식인의 조건에 대해 어떤 시사점을 갖는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이 장에서는 2008년 6월 18일부터 8월 16일까지 미네르바가 다음 아고라 경제토론방에 올린 토론글 60건과 그에 대한 네티즌 댓글 4551건을 분석하고자 한다.² 미네르바는 2008년 6월 18일부터 2009년 1월 5일까지 다음 아고라에 글을 썼지만, 수차례 절필을 선언하면서 자신의 글을 삭제했다. 네티즌들은 대체로 2008년 6월 18일에서 9월 18일까지의 글을 ‘미네르바 시즌1’로, 2008년 10월 2일부터 구속되기 전까지 쓴 글을 ‘미네르바 시즌2’로 부르지만, ‘시즌 1’ 내에서도 두 번 휴지기가 있었다. 여기서는 ‘시즌1’의 두 번째 휴지기인 2008년 8월 16일까지 그가 쓴 게시물들과 그것에 달린 댓글들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미네르바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애착의 대상이 되어간 과정을 추적하고자 하는 이 논문의 취지에 비추어, 그가 이미 유명인사가 된 이후보다는 초기의 텍스트들과 반응들을 분석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이 논문은 연구방법론으로 페어클라우(Fairclough)의 비판적 담론분석에 의존하는데, 그것은 기존 사회들의 작동 방식과 문제점을 이해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비판적 사회 연구의 일부로서 동시대의 사회적 삶에서 발생하고 있는 근본적인 변화에 특히 관심을 기울이며, 이러한 변화 과정들에서 담론이 등장하는 방식, 그리고 실천들의 네트워크 속에서 담론 및 기호현상들과 여타 다른 사회적 요소들의 관계 변화에 주목한다(Chiapello & Fairclough, 2002, p. 185). 그것은 “여타의 사회적 실천들의 요소들과 담론 사이의 변증법적 관계들에 대한 분석”(Fairclough, 2003, p. 205)이다.

페어클라우는 텍스트에 대한 엄밀한 분석과 비판적인 사회이론을

2 자료수집의 한계로 인해 별개의 토론물 형식을 취하는 ‘답글’은 이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다. 미네르바의 토론글에 곧바로 달리는 ‘네티즌 댓글’ 역시 이용자들의 의지에 따라 수시로 등록되고 말소되므로 특정한 시기에 포착된 것일 뿐 전수 분석은 아니다.

결합시키는 이러한 기획을 구현하기 위해, 사회이론에 관여하지만 텍스트의 언어를 분석하는 데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푸코 식의 담론분석과 텍스트의 언어에 초점을 맞춘 채 이론적 논점에는 무관심한 언어학적 담론분석의 분리를 극복하고자 노력해 왔다. 이 과정에서 그는 특정한 텍스트(사회적 사건)와 언어(사회구조), 그리고 이 둘 사이를 매개하는 ‘담론의 질서’(사회적 실천)³를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개념적 도구들을 개발해 냈다.

미네르바 신드롬은 우리 사회의 전반적 지식생산구조가 인터넷에서 지식인들을 생성해 내는 특수한 사회적 실천을 통해 매개되면서 발생한 하나의 사회적 사건으로 간주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그것은 세계 금융위기에 대한 담론적 실천이라는 점에서 경제적 세계화 이후 한국사회가 겪고 있는 다면적인 변화와도 관련된다. 이 논문의 기본적인 관심사는 미네르바 신드롬을 구성하는 텍스트들을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유형의 지식인을 특징짓는 담론의 질서를 추려내고 이를 통해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시민지성’의 조건을 밝혀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비판적 담론분석의 개념적 도구들을 활용한 텍스트분석을 수행하고, 다시 이를 보다 폭넓은 사회적 맥락과 연계해서 재해석하는 이중적인 작업을 수행했다.

텍스트 분석의 초점은 미네르바가 자신에 대한 재현과 특수한 글쓰기 스타일을 통해 경제전문가로서 정체성을 구축해 나간 방식과, 다른 토론 참여자들의 그의 정보와 분석을 평가하고 그의 정체성을 귀속시키는 방식에 맞춰졌다. 이를 위해 페어클라우(1995, 2003)의 개념적 도구들 가운데 ‘스타일’⁴과 ‘양태(modality)’⁵, ‘가치평가(evaluation)’ 등을

3 여기서 담론의 질서는 다양한 장르들(행위의 방식들), 담론들(재현의 방식들), 스타일들(존재의 방식들)이 서로 연계되는 방식을 의미한다.

4 스타일은 정체성의 담론적 측면으로 사람들이 자신과 타인의 정체성을 귀속시키는 방식(identification)과 관련되며, 음운론적 특성들(발음, 억양, 강세, 리듬), 어휘 및 은유(가령 강조어구, 약담), 몸짓 언어 등을 통해서 실현된다. 이 장에서는 인터넷 토론 게시판을 분석하므로, 이 중에서 어휘 및 은유가 주요한 분석대상이 된다.

주로 활용했으나 담론들(재현 방식)이나 장르들(행위 방식)에 대한 분석도 병행했다.

텍스트 이외의 사회적 요소들과 텍스트 분석의 결과를 연계시키는 이차적 작업은 미네르바가 구축했던 정체성이 어떻게 그의 독자들에게 호소력을 가질 수 있었는가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미네르바가 충족시킬 수 있었던 시민지성의 특정한 조건들을 탐색하고자 했다.

4. 텍스트 분석: 미네르바 신드롬의 형성

1) 미네르바의 스타일과 정체성 귀속

사회적 정체성을 성취하는 것은 사회적 역할들을 체현하고 그것에 자신의 퍼스널리티를 입힘으로써 그것들을 취할 수 있는가와 관한 문제이다 (Fairclough, 2003, p. 160). 한 사람의 사회적 정체성은 종종 다양한 사회적 역할들을 포함하며, 그/그녀의 퍼스널리티가 지닌 독특함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그 사람이 이 역할들을 엮어 나가는 특유한 방식의 산물이다.

‘미네르바’는 자신에 대한 직, 간접적인 언급과 ‘우리’-인칭대명사의 사용, 현실과 미래에 대한 단언, 행동의 필요성에 대한 단호한 요구, 진보적 가치와 토론의 합리성에 대한 강조, 욕설을 포함한 대중적 어휘의 사용 등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역할들을 부착해 나갔다. 이를 통해서 그는 경제전문가, 보통 사람, 시민, 진보적 지식인, 합리적 지식인, 교육자 등이 결합된 독특한 정체성을 만들어냈다.

5 양태(modality)와 가치평가(evaluation)는 각각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필요한가(양태)와 무엇이 바람직한가(가치평가)에 대한 글쓴이의 의사 표명을 보여준다. 양태는 저자와 재현 사이에 설정되는 관계로서, 인식론적 양태(확률)와 의무론적 양태(불가피성과 의무)로 구분된다. 텍스트에서 무엇에 대해 어떤 강도로 의사를 표명하는가는 글쓴이가 자신의 정체성을 귀속시키는 중요한 방식으로 간주될 수 있다.

(1) 재현을 통한 정체성 구성

① 미네르바,(30대 증권업계종사자)

인터넷 상에서 글쓴이의 정체성은 주로 글을 통해 서술되고 추론되며, 그러한 이유로 오프라인에 비해 쉽게 글쓴이의 의지에 따라 통제된다. 미네르바는 시간과 공간, 다른 사람에 대한 단서들을 통해 암묵적인 수준에서 스스로를 금융권 종사자로 구성하는 한편, 명시적인 수준에서는 그것을 부정하는 이중 전략을 구사했다.

30대 후반의 증권업계 종사자이자 이타적인 네티즌로서 미네르바의 정체성은 주로 ‘여의도’, ‘1998년’, ‘고객’, ‘우리 회사’ 등 특정한 어휘의 배치를 통해 구성되었다. 미네르바는 1998년 여의도의 상황을 언급하는데 이를 통해 자신의 연령이 적어도 30대 후반임을 시사했다. 또한 ‘여의도’는 증권거래소와 대형 증권사, 방송사, 국회의사당 등이 있는 장소지만, 경제토론평의 특성상 그가 증권과 관련된 일을 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여지가 높았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 사무실’, ‘우리 회사’, 밑에서 일하는 ‘애들’, ‘고객’ 등에 대한 미네르바의 언질은 그가 직장인이고 회사 내에서 부하직원을 거느리는 위치에 있음을 추론하도록 만들었다. 그는 이 정체성을 자신이 저지른 사소한 오류들을 방어하는 데도 종종 활용했는데, 이것은 역으로 시간을 쪼개서 다른 사람을 돕는 선량한 지식인으로서 그의 이미지가 구축되는 데 일조했다. ‘직업 특성상 날밤을 몇일 까기가 일쑤라 무례를 범했습니다’(미네르바, 2008. 7. 23)라든가, ‘일하다가 쓰는 거라 따로 교정을 못한 것 같아 그게 불편한 폐를 끼쳐 드린 것 같습니다’(미네르바, 2008. 7. 23) 같은 진술이 그것이다.

그가 제공했던 단서들, 즉 ‘여의도’, ‘업무 보는 틈틈이 글을 쓴다’ 같은 조항들은 독자들이 그의 정체성을 귀속시키는 주요한 근거로 활용되었으며, 때로는 그가 하지 않은 말이 한 것처럼 와전되기도 했다: ‘기업 컨설팅 하신다고 예전 글에서 밝히셨어요… 여의도 어디에 계신다고 하시던데… 그냥 그렇게만 말씀하심…’(a14, 2008.08.11). 이외에도 금감

원 직원, 증권계 종사자 등이 물망에 올랐다. 이러한 반응은 미네르바가 암묵적으로 구성해 나갔던 그의 정체성이 독자들에게 상당부분 수용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미네르바는 정작 그의 직업이 무엇인지 묻는 댓글에 대해서는 ‘옛장수요’라는 통명스럽게 답했다. 이러한 자기규정은- 시즌2에 그가 자신을 ‘고구마 파는 할배’라고 지칭한 것과 유사하게- 오히려 그의 실재 정체성에 대한 독자의 호기심과 상상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

② 우리, 국민/서민/천민

미네르바는 종종 ‘우리’라는 대명사를 사용해서 자신과 독자 사이에 동질성을 설정했는데, 이 경우 ‘우리’는 대개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인해 고통을 강요받는 존재로 묘사된다. 가령, 그는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 ‘이제 와서는 2년 희생은 각오해야 한다는 개소리를 지껄인다… 그럼 우린 도대체 뭐라고 해야 하나?…’(미네르바, 2008. 7. 7)라고 비판하거나, 현 경제 상황에 대해 ‘한 번 시스템이라는 체계가 붕괴되거나 타격을 받으면 원상 복귀 하는 데는 그 몇 배의 뼈저린 대가를 반드시 치뤄야 한다는 사실이고 그 대가를 치루는 그 주체는 바로… 우리들’(미네르바, 2008. 7. 7)이라고 한탄한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그들’과의 분리와 대립을 전제하며, 이러한 적대적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대통령, 여당, 정책 당국, 기득권층 등으로 규정된다.

그의 독자들 역시 대부분 이러한 대립 구도를 공유한다. 이들에게 정부는 ‘국민에게 고통분담하라는 말이 아니고 고통을 좀 짊어져달라 호소하는’(a19, 2008.07.18) 존재이고, 경제정책은 ‘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a20, 2008.07.18) 것으로 간주된다. 나아가 이들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서민과 기득권층, 국민과 정부, 심지어 극빈층과 서민 사이에 이해관계가 상충된다고 가정하면서 정부와 사회가 자신들을 돌보지 않는다고 한탄한다: ‘역시 미네르바님 예상대로 서민들, 중소기업들 쥐어짜서 대기업 먹여주는군요.’(a, 21. 2008.08.06).

반면 미네르바의 글에서 ‘우리’는 ‘국민’, ‘개인’, ‘서민’, 심지어 ‘천민’

으로 표상되는데, 이는 댓글에서 드러나는 아고라 이용자들의 자기규정 과도 대체로 일치한다. ‘더 이상의 희생은 국민으로서 용납하지 않겠습니다…’(a16, 2008.07.07, 혹은 ‘서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연금하고 10년 동안 모아 놓은 돈 다 갖다 바치게 생겼구만…원금이라도 돌려받고 싶은 심정이네…쓰글…’(a18, 2008.07.12) 같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은 스스로를 국민이나 서민으로 지칭한다.

따라서 미국 모기지 은행의 파산이 확정된 7월 14일, 미네르바가 ‘9월 경제 위기에 대비 하는 우리들의 자세’를 게시한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듯 보인다. 그는 인플레이션에 대비해서 6개월분의 생필품을 사들 것, 악성 채무를 미리 정리할 것, 은행 이자를 점검할 것, 공공요금 및 난방비 인상에 대비해서 집의 단열에 주의할 것, 생활비 6개월분을 현찰로 소지할 것, 유로화에 투자할 것 등을 주문했다. 그는 자신이 ‘이 나라에 사는 평범한 소비자의 입장’(미네르바, 2008.07.14)에서 이 글을 썼다고 주장한다.

‘우리’라는 인칭대명사를 통해 미네르바는 일반 네티즌들과 동일한 생활세계의 구성원으로서 스스로를 자리매김한다. 이 공동의 정체성은 국민과 서민, 천민을 넘어 ‘평범한’ 소비자로 확장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증권업계 종사자’이자 이타적 지식인으로서 미네르바가 갖는 ‘평범하지 않음’은 희석된다. 이것은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구분이 함축하는 위계를 녹여내면서 입장과 관점, 이해관계의 차이를 부정하도록 만든다. 따라서 그의 진실 진술문과 윤리적 진술문이 지닌 권위적 뉘앙스에도 불구하고 미네르바가 ‘대응 조치’를 지시하거나 책을 읽으라는 요구를 할 때조차도 그의 주장은 쉽사리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진술문’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혹은 우리 모두를 위해 진술할 수 있는 권력을 함축한다(Fairclough, 2003). 이러한 권력은 사회적으로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정체성 귀속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러한 권력을 자임함으로써 그는 단순한 전문가의 위치를 넘어서 독자들의 대변인으로서 스스로를 자리매김한다.

미네르바가 아고라 이용자들은 ‘우리’로 호명한 것과 달리, 댓글에

서 그의 독자들이 그를 ‘우리’가 아닌 ‘님’이나 ‘분’으로 칭하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미네르바와 그들의 관계는 사실상 가르침을 주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 즉 교사-학생의 관계에 가까웠고, 그는 ‘실물 경제 종사자’로서 자신의 전문지식과 고급 정보를 공유해주는 고마운 존재, 우리를 보살피주는 사람으로 간주되었을 확률이 높다. 이는 전문가-비전문가의 비인격적인 위계보다는 느슨한 형태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관계의 비대칭성을 함축한다.

(2) 글쓰기 스타일을 통한 정체성 구성

① 연구보고서와 비평 장르의 결합

미네르바의 전형적인 글쓰기 스타일은 2008년 7월 10일부터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연구보고서 장르와 비평 장르가 접합된 형태를 취한다. 보고서 형식을 띠는 전반부는 대개 개조식 문장과 유사한 형태로 구성되며 그래프와 객관적인 수치에 근거해서 현황- 파급효과- 결과분석- 결론으로 마무리된다. 여기서 미네르바는 3인칭의 비인격적인 목소리를 취함으로써 자신의 진술에 객관성을 덧입힌다. 반면 게시물의 후반부는 대개 경제정책에 대한 감정적인 비판과 독자들에 대한 열정적인 조언이 제시된다. 이러한 장르 혼합은 그가 활동했던 다음 아고라의 다른 글들과 그를 차별화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미네르바의 글들은 다수의 통계적 자료와 그래프, 도표 등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런 의미에서 상호텍스트성의 일종인 ‘보고된 발언’을 다수 포함한다. 보고된 발언은 그 출처가 명시될 수도 있지만 다른 출처로부터 보고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은폐될 수도 있다.

미네르바의 글에서 인용문의 출처가 명시된 경우 그것은 대부분 ‘FT’(Financial Times), 블룸버그 통신, AFP 같은 외국 경제전문지이거나 통신사였고, 그래프나 통계 수치에는 대개 통계청이나 금융기관의 이름이 붙어 있었다. 이러한 출처들은 그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해 주는

한편, 전문적인 자료들을 취하고 해석할 수 있는 그의 전문성을 보증하는 장치로 작용했다.

다른 한편으로 그는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의 비공개 발언 같은 모호한 용어로 정보원을 제시하기도 했고, 때로는 아예 출처를 밝힐 수 없다고 거부하기도 했다. 가령, 시중은행의 부실과 관련된 게시물에 대해 아고라 이용자들이 출처를 요구하자 그는 ‘출처 대면 난 경찰 구속되어야 한다… 믿고 안 믿고는 개인 자유다’(2008.07.16)라고 응수했다. 보고된 발언에 대한 이러한 처리방식은 종종 출처를 밝히기를 요구하는 일부 독자들과 충돌을 야기했지만, 외국 경제지를 읽고 일반인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고급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실물경제 종사자로서 미네르바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데 일조했다.

② 단정적인 현실진단과 행동에 대한 요구

‘양태(modality)’의 측면에서 미네르바의 글은 상당 부분 지식의 교환, 그 중에서도 실재적(realis) 진술문으로 구성되었으며 대부분이 매우 강력한 ‘단언’의 형태로 부정적인 가치평가와 함께 제시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진술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가령, 미네르바는 2008년 7월 7일 처음으로 9월 위기설을 제기하며서 ‘9월 28일 IMF 시즌 2 위기 도래 파문 확산’이라는 제목 하에 게시물 작성하면서 “시장이 요 근래 패닉 분위기다…”(미네르바, 2008.7.7)라고 규정한다.

단언과 강력한 의사 표명은 미래에 대한 예측을 보여주는 비실재적(irrealis) 진술문에서도 드러난다. 예컨대 그가 ‘그때는 한국은 일본식 장기 불황도 사치야… 저기 파테말라나 중남미식 L 자형 초장기 불황에 돌입해야 한다’(미네르바, 2008.7.8)라고 쓸 때 그는 미래의 예측에 일종의 필연성을 부여한다. 또한 양태의 표지자 면에 있어서도 그는 ‘~한 게 사실이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200% 변명의 여지가 없는’ 등의 매우 강력한 수준의 의사표명을 보여준다.

행위 교환(의무론적 양태)의 측면에서도 제안보다는 명령조의 요

구가 많이 등장했다. 그는 정부에 대해서는 정책을 재고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하지만 독자들에게 경제 상황에 대해 대비할 것을 촉구할 때는 높임말을 써서 어조를 누그러뜨리곤 했다: ‘각자 시장 충격에 대비하십시오… 난 투자 안 했으니까 관계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건 개 착각입니다… 요즘은 미국발 악재가 한국에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니깐요…’(미네르바, 2008.7.8).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차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분야로 조언의 범위를 넓혀갔고, 7월 24일에 이르러서는 책을 읽으라고 권유하기 시작했다: ‘일반인이 일단 돈을 벌겠다고 달려들기 이전에 도대체 자본주의가 뭔가 하는 자본주의 역사에 관한 책 한권 정도는 읽어 보고 이해를 한 다음에 뛰어 들어야 한다는 소리지….’(미네르바, 2008.7.24)

지식 교환의 측면에서 미네르바는 경제적 상황과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자신의 정보와 분석에 매우 강력한 헌신을 보여주는데, 이는 ‘전문가로서 자신의 지식과 판단에 대한 확신과 권리 주장을 함축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의무론적 진술에서도 그의 처방은 매우 확고한 형태로 제시되지만, 그것이 갖는 권위적인 측면은 공손전략을 통해 감추어졌다.

③ 은유와 독설

미네르바가 사용한 어휘들의 가장 큰 특징은 복잡한 경제적 지식을 일상적인 언어와 은유를 통해서 해학적으로 번역한다는 점이다. 가령 그는 환율정책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하면서 ‘지금 한국의 물가는 신라면 한 봉지에 2천 원이 넘어야 정상이다… 다른 나라는 모조리 달러 약세 속에 인플레이 방어를 할 동안, 한국은 따블로 피박을 쓴 것이였다…’(미네르바, 2008.6.28)라고 설명한다. 또 미국 모기지 은행들의 상황에 대해서는 ‘사형 날개 잡아 놓고 단두대에 목 올려놓은 상태에서 추기(FRB)의 특별 사면장이 오기를 눈 빠지게 기다리는 중…’(미네르바, 2008.7.12)이라고 묘사한다. ‘초보의 경우엔 다른 분들보다 미네르바님의 글이 확 와 닿고 이해가 더 빨리 되는 것 같습니다’(a8, 2008.08.11)라는 한 이용자의 평가가 보여주듯, 대중적인 어휘와 은유를 사용함으

로써 미네르바는 경제 분야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지는 다수의 독자에게 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다른 주요한 특징은 상당히 거칠고 강렬한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독자들의 감정을 동원해 낸다는 것이다. 거의 모든 게시물에 욕이 등장하는데, 이러한 표현은 공격적인 글쓰기라는 면에서는 정치토론을 일삼는 논객들과 유사하지만, 조롱과 비아냥대신 직설적이고 감정적인 토로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이는 일종의 감정적 가치평가로도 이해될 수 있다. 미네르바가 사용하는 욕은 그 자신이 고백하듯, 해당 대상에 대한 격렬한 부정과 분노의 표현을 함축한다: ‘요즘 들어서는 욕만 늘어서… 가끔 나 자신한테 놀랄 때가 있다…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는 이 나라 경제 현실이 너무 치가 떨릴 뿐이다…’(미네르바, 2008.7.7, 238438). 이러한 감정적 표현은 독자들과 자신을 ‘우리’로 한데 묶는 재현방식과 더불어 불안한 현실에 절망하고 분노하는 독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기여한다. 또한 경제전문가로서 그의 정체성에 통속적인 어휘를 구사하며 사람들을 계몽하고 사회의 모순에 거침없이 욕설을 뱉어내는 지식인으로서 독특한 퍼스널리티를 부여한다.

2) 미네르바에 대한 독자들의 평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미네르바가 취한 정체성은 매우 독특한 성격을 지닌다. 그는 경제전문가 중에서도 학자가 아닌 실물경제종사자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설정했고 최소한의 객관성을 담보한 보고서 장르의 혼용과 각종 자료의 직간접적 인용을 통해 이러한 전문가 정체성을 뒷받침했다. 다른 한편으로 그는 정부, 보수언론, 기득권층에 대한 비판과 욕설을 통해 분노와 불신을 표출하면서 ‘서민’의 입장에서 대안적인 경제전망과 생존방법을 제시했는데 이는 대중매체에 등장하는 경제전문가의 모습과 차별화된다.

그의 활동에 대한 독자들의 평가는 대부분 분석과 비판에 대한 동조와 정보 공유에 대한 감사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댓글들 중 상당수는

미네르바에게 공감을 표현하는 데 할애되었는데, 이것은 주로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과 ‘조중동’으로 표현되는 보수언론에 대한 불신에 집중되었다. ‘저두 그래요…아오! 올 국민들 주름살 퍼질 날이 없을 듯…’(a27, 2008.07.07)이라든가, ‘한 국가의 사회안전망이 깨진 것 같아요. 공감합니다. 2년이라!’(a28, 2008.07.07) 같은 표현들이 이에 해당된다.

이와 함께 환율, 증시 같은 실질적인 경제지표에 대한 미네르바의 분석과 전망 역시 타당성과 유용성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유형의 댓글은 주로 그의 ‘통찰력’과 ‘정적인 수치와 동적인 역사흐름까지 어울려서 고찰하는 능력’(a29, 2008.08.14)을 높이 사는 형태로 제시되었다. 이 중 일부는 직접적으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거나 심층적인 분석을 부탁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좋은 글 계속 부탁. 전 당분간 시험이라 글 올리기 힘드네요.님께서 국내 재정정책 분석까지도 좀 맡아서 글 써주실 수 있나요?’(a30, 2008.07.10).

이용자들이 미네르바에게 감사한 이유는 그의 글이 유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선동이라는 글 있는데요. 저한테 도움이 되는 글 같아요. 어조가 필사적이고 울부짖음에 가까운 것은 글쓴이의 감정이 이입되어 전달력을 높이는 도구로 쓰인 겁니다. 경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분 글을 보면서도 자신이 아는 지식, 경제적 상황에 대입하여 각자의 해법을 찾고 있을 겁니다’(a31, 2008.7.18). 특히 경제 분야에 취약한 토론 참여자들은 그의 글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고 고마워했다: ‘어려운 경제용어를 풀어서 이해하기 쉽게 펼쳐주시는 미네르바님 오늘도 좋은 글 감사합니다… 건필하세요^^’(a32, 2008.08.01)

이와 달리 미네르바의 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그의 진보적인 정치적 성향에 집중되었다. 이러한 원색적인 댓글들은 미네르바의 정보나 분석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기보다는 그를 ‘쥐새끼’, ‘꼴통 좀비’, 정신병자 등으로 칭하면서 욕설과 인신공격에 주력했다. 일부 참여자들은 미네르바에 동조하는 사람들까지 싸잡아 비난하기도 했다: ‘니네들이 저런 빨간 글씨에 흥분하는 것들은 좌파 주사파 바퀴벌레라 그런 거야…

거기에 무뇌 좀비들이 가세해서 아주 딱 어울려 바퀴벌레 가득 찬 좀비들… 다 집에서 빈대떡이나 구워라…’(a34, 2008.07.07). 이러한 극소수의 댓글은 주로 ‘악플’로 치부되어 역으로 다른 참여자들의 비판과 공격을 불러일으켰다.

한편, 미네르바의 분석과 해법의 오류를 지적하는 체계적인 비판도 존재했다. 분석 기간 중 가장 많이 제기되었던 문제는 생필품 사재기의 부정적인 효과와 관련된 것이었다. 미네르바는 2008년 7월 14일 ‘9월 경제쇼크에 대비하는 우리들의 자세’에서 쌀, 비누 같은 생필품을 6개월분 정도 확보해 두라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상당수의 토론자들이 지나치게 불안을 조성할 뿐 아니라, 생필품 사재기가 궁극적으로 스테그플레이션을 앞당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너무 사회를 불안하게 조장하지는 마십시오’(a35, 2008.07.14)라는 부탁이나, ‘작님 말대로 한다고 칩시다… 지금 물가 인상이 몇 배는 빨라질 겁니다’(a36, 2008.07.14)라는 문제제기가 이에 해당된다. 이이와 더불어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공격가능성에 대한 분석이나 리먼 브라더스 보고서의 자료를 잘못 인용한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루어 졌다. 이러한 비판은 미네르바의 분석과 대안이 독자들에게 전적으로 수용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객관적 수치와 자료를 중시했던 미네르바 못지않게, 일부 이용자들 역시 관련 정보를 검색하고 해석함으로써 분석의 진위와 타당성을 평가하고자 시도했다. 이는 인터넷 토론장의 합리성을 의심하는 일반적인 견해와는 배치된다.

5. 텍스트를 넘어서: 미네르바 신드롬의 사회적-역사적 맥락

2008년 6월 중순에서 8월 중순에 이르는 두 달 남짓한 이 기간 동안 ‘미네르바’는 무명의 네티즌에서 온라인 스타 논객으로 변화해 갔다. 앞에서 분석했듯이 여기에는 거칠고 열정적인 특유의 글쓰기 스타일과 대중적인 어휘의 사용, 단언적인 사실 진술과 공손한 조언의 배치 같은 다

양한 요인들이 작용했다. 인터넷의 익명성과 비가시성 뒤에 몸을 숨긴 채, 그는 몇 가지 단서들을 글 속에 배치함으로써 ‘여의도 증권가에 근무하는 실물경제 종사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직조하는 데 성공했다. 또한 그는 ‘우리’와 ‘국민’ 같은 단어로 동료 네티즌들을 호명함으로써 그러한 전문가 정체성이 지닌 위험을 극복하고 독자들과의 동질성을 확보해 나갔다. 그가 외국 경제지와 ‘밝힐 수 없는’ 정보원을 주로 자료의 출처로 언급함으로써 ‘고급 정보’의 소유자로 스스로를 구축해 나간 것 역시 이러한 전문가 정체성을 돕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미네르바가 수많은 논객이 활동하는 아고라에서 인정을 획득할 수 있었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이성적 추론에 대한 신뢰와 이타적 동기에 대한 믿음, IMF로 인한 정부와 언론, 제도권 경제전문가에 대한 불신, 그리고 총체적 시각을 지닌 전문가의 부재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그의 글은 공격적이고 거친 어휘에도 불구하고, 타당한 근거와 이성적인 추론에 기반을 두고 있었으며 전통적인 지식생산체제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타당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듯 보였다. 경제적 예측이 필요한 순간에 그는 항상 도표와 그래프, 통계 수치를 근거로 들면서 분석을 수행했고 다른 네티즌들의 원색적인 비난이 제기될 경우 그는 상대방에게 통계수치에 근거를 둔 논리적인 비판을 요구하면서 이에 맞서 나갔다.

둘째, 미네르바는 아래의 발췌문에서 볼 수 있듯이, 자신이 경제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이유가 일반인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연민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매일매일 수십 건씩 자료들을 보다보면 이제는 진짜 한심하다는 말 밖에는 이제 안 나온다. ... 그런데 일반인들은 지금 돌아가는 판이 어떤 고스톱판인지 몰라도 너무 모르는 상황이다. ... 더구나 실물 경제라는 건 대학 경제학 교과서대로 흘러 가는 게 아니란 말이다. ... 그래서 최대한 현실에 가까운 현재 상황을 말해 주는 것이다. 당해도 알고 당해야지. ... 너무 안타까워

서 비는 시간에 몇 자 적었다. … (미네르바, 2008. 8. 5)

그는 이러한 그의 의도와 동기는 그가 사용하는 대중화된 어휘와 은유를 통한 설명 방식과 부합되었을 뿐 아니라, 그가 종종 작성했던 '9월 경제 쇼크에 대비하는 우리의 자세' 같은 생활지침서들에서 나타나는 그의 관심사와도 일치했다. 그는 '일반인들이 실생활에서 피부로 느끼는 지금 이 상황에서 가능한 한 현실적으로 살아남는 길'을 모색하고자 했고, '경제학 원론 얘기가 아닌 (...) 구체적인 수단'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가 특히 걱정한 것은 10여 년 전 IMF체제 하에서 일반인들이 경험했던 일들이 다시 반복되는 것이었다: '또 일반인들만 다 희생하라고요?... 다 닦치고?... 그건 아니죠...이제.'(미네르바, 2008.07.14). 미네르바에 대해 아고라 이용자들이 표현했던 '감사'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보다 큰 사회적 맥락에서 그가 획득했던 애정과 호의는 IMF의 경험에, 그것이 야기한 제도권 경제전문가와 언론, 정부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에 토대를 둔 것이기도 하다.

제 경험상 경제박사들이 서민 증산층 살리는 대책 내놓는 거 본적이 없어서... 앓는 소리하고 소리 벽벽 질러대야 그제서야 '아 아들 힘드네' 하고 선심성 대책 내놓는 거 밖에는... IMF 안 겪어 보셨나 봐요? 경제전문가들 3일전까지도 IMF는 없고 경제는 건실하다고 국민 속였는데...(a37, 2008.07.14)

선동적인 게 잘못된가? 우리나라 언론들이 똑바로 해봐 이런 글 올릴 시간에 다른 좋은 의견을 작성한다 이거야... 위기를 위기라고 하지 않고 위기가 아닌데도 위기라고 지라 르을 떨고 무엇이 맞는 거여? 선동적이건 과장이건 최소한 지난번 imf때처럼 낫 놓고 정리하고 당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실업자 되지는 않을 수 있다 이거야 최소한 마음의 준비라도 할 수 있지~~(a38, 2008.07.14)

미네르바가 환기시키고 이들이 스스로 떠올리는 IMF의 트라우마는 경제적 고통만큼이나 정부와 언론으로부터 의도적으로 ‘기만당했다’는 충격에서 비롯된다. 1997년 외환위기 직후 언론매체들에 대해 제기되었던 비판은 이들의 ‘희생자 의식’이 나름대로 이성적인 근거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덕모(1998)는 IMF 긴급자금을 받기로 결정된 1997년 11월 22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경제 위기를 예고하는 언론 보도는 찾기 어려웠다고 지적한다. 심지어 일부 언론사는 해외언론매체들이 11월 초 한국의 외환위기와 IMF 개입 가능성을 앞 다투어 보도하자 ‘한국경제 흔들기’(동아일보 11월 10일 사설), ‘한국경제 왜곡보도’(서울신문 11월 10일)라면서 이들을 성토했다(김덕모, *ibid.*), ‘걱정할 것 없다’는 정부의 발표만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기까지 했다(윤용호, 1998).⁶

언론도 정부도 믿을 수 없다는 미네르바와 아고라 이용자들 사이의 공감대는 이러한 경험에서 비롯된다. 더불어 다음 아고라와 같은 인터넷 지식 공동체에 대한 이들의 의존 역시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네르바 증후군은 세계화를 통해 지나치게 복잡해지고 유동적이 되어버린 세계 경제의 흐름을 종합적인 안목을 가지고 설명해 줄 ‘전문가’의 부재를 배경으로 삼는다(안민호, 2009). 미네르바는 외환위기의 불안과 공포를 기억을 안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위기설’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바로 이러한 유형의 ‘전문가’로서 등장했다. 그는 학술적인 전문지식을 요하는 환율·주식시장 분석은 물론, 자본주의의 역사, 미국, 중국, 일본, 중동 등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요한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사건들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단순하고 알기 쉬운 용어로 전체적인 지도를 그려주었다. 또한 그는

⁶ 2008년 금융위기에서도 한국의 신문과 방송은 경제 위기를 미리 예측하지도, 제대로 해석하지도 못했다. 이러한 상황이 재연된 것은 일차적으로는 급격하고 전면적이며 장기 지속적인 경제위기 앞에서 쏟아져 나오는 생소하고 난해한 정보들을 제대로 다룰 만한 방송시간과 신문지면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안민호(2009)를 참고할 것.

소시민들이 다가오는 경제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들을 제공했다. 그리고 이 모든 정보와 지식은 동료 네티즌들의 감사와 인정 외에 어떤 보상도 없이 무료로 배포되었다.

6. 끝맺으며: 시민지성의 조건

단순하게 생각하면 미네르바 신드롬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전야에 한 인터넷 스타 논객이 어떻게 탄생했는가에 관한 이야기이다. 다음 아고라 경제토론폰방에서 임박한 금융위기를 경고하고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분노를 쏟아내며 소시민들이 살아남을 방법을 조언하던 한 무명의 네티즌은 불과 넉 달 만에 ‘시민지성’으로 불리며 언론에 오르내리는 유명인사가 되었다. 이 논문은 미네르바가 명성을 얻는 과정에서 작성했던 게시물과 네티즌의 반응을 통해서 경제적 불확실성이 삶의 조건이 되어버린 IMF체제 이후의 한국 사회에서 온라인 ‘시민지성’의 조건에 대해 탐색하고자 했다.

미네르바가 취했던 ‘경제전문가’로서의 정체성은 주류 언론에 등장하는 신자유주의 시대의 ‘권위자(guru)’나 나날이 전문직화되어 가는 대학제도에 포섭된 ‘학자’와는 사뭇 다른 유형의 것이었다. 자본주의의 역사적 흐름, 한국 경제체제와 IMF 이후 기업의 변화, 경제 불평등의 심화 같은 비판적, 사회과학적 지식을 토대로 자신의 분석을 뒷받침한다는 면에서 그는 진보적 학자와 유사했으나, 경제 주무부처나 증권가에 종사하는 내부자만 접근 가능한 ‘고급’ 정보들을 수시로 제공했다는 점에서 현실의 경제상황에 정통한 권력집단의 일원처럼 보였다.

반면, 그의 글쓰기 스타일은 권력 집단 내부의 현업출신 경제전문가가 지닐 법한 권위와는 걸맞지 않았다. 그의 어휘 사용방식은 학술적 전문용어를 쉽게 풀어쓰거나 은유를 통해 설명해 준다는 점에서 비전문가 독자들과 시청자들을 고려해야 하는 ‘권위자’와 유사성을 지닌다. 하지만 미네르바가 경제 현황을 분석하는 가운데 욕설까지 동원해 가며 대

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고위 경제 관료들, 정부 정책, 주류 언론 등에 대한 격렬한 분노를 표출하고 독자들에게 대한 연민과 애정을 고백하는 것은 그의 독특한 정체성을 구성해 낸다. 강렬한 감정적 관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학술적 논문이나 전문가 칼럼에서는 치명적인 결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정적인 비난보다는 ‘숫자’와 ‘계산’에 근거를 둔 비판과 토론을 추구함으로써 최소한의 합리성을 유지하고자 했다.

미네르바의 정체성 귀속(identification)이 드러내는 이러한 이율 배반적인 성격은 ‘시민지성’의 조건과 관련해서 어떠한 시사점을 지니는가.

첫째, 미네르바는 자신의 진술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통계와 그래프에 의존함으로써 기존의 지식생산체계에서 요구하는 합리성과 객관성을 지키고자 노력했다. 그의 글에 대한 독자들의 신뢰는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이러한 타당성에서 비롯되었다. 그의 글은 어휘목록이나 논리적 일관성에 있어서 학술논문과 상당히 다른 형태를 취하지만, 현실에 대한 상황 판단과 미래에 대한 예측은 확실한 근거를 가진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비전문가들이 지식생산에 참여하게 된 인터넷 이후의 지식체계에서도 이성적 추론이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을 보여준다.

둘째, 미네르바의 글은 경제적, 사회적 약자로서 일반 국민들에 대한 공감과 연민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가 구성했던 실물경제에 종사하는 경제전문가로서 정체성은 그가 배포하는 ‘고급’ 정보나 경제학적 지식과 더불어 평범한 네티즌들과 그 사이의 위계를 만들어냈다. 그와 그의 독자들 간의 관계는 시혜자와 수혜자, 혹은 교사와 학생의 관계에 가까웠다. 하지만 이러한 위계는 그가 경제적 불확실성과 사회적 불만을 논하고 자신을 그들 속에 위치시킴으로써 해소될 수 있었고, 덕분에 그는 인터넷에 만연한 반지성주의의 덮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다.

셋째, 미네르바는 정보의 흐름으로부터 주변화 된 사람들, 혹은 자신이 주변화 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경제적 생존과 직결되는 실용적

인 정보와 지식을 제공했다. 정보화는 정보의 상품화를 수반한다. 환율, 주가, 정부정책, 금융기관의 내부사정 등 미네르바가 ‘속보’라든가 장문의 분석을 통해 제시했던 지식은 일반인들이 주류언론을 통해서 접하기 어려운 성격의 것들이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돈으로 환전되는 정보들을 공개함으로써 그는 다음 아고라 이용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었다. 경제학자가 아닌 실물경제종사자로서 그의 가상적 정체성은 이러한 맥락에서 매우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처럼 보인다.

넷째, 미네르바는 경제학적 지식과 최신 정보들을 적절히 조합하여 현실 상황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내는 데 성공했다(혹은 적어도 그렇게 비쳐졌다). 그가 인용한 자료들 중 상당 부분은 국내의 경제 전문지나 통계청, 금융기관 등의 통계 수치였고 그런 이유로 마음만 먹는다면 누구든 쉽사리 구할 수 있는 정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단편적 정보들을 입수할 수 있다는 것과 전반적인 흐름의 일부로서 그 정보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이다. 경제적 불확실성과 불안의 시기에 절실한 것은 일종의 ‘인지적 지도그리기’이고 미네르바는 그것을 제공해 줄 수 있었다.

흥미롭게도 미네르바의 이러한 특성은 전통적인 ‘지식인’, 혹은 ‘공공 지식인(public intellectual)’의 이미지를 환기시킨다. 다양한 논의들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의미에서 지식인에게는 보편성을 추구하고 대중을 선도하는 계몽적 엘리트로서의 의무가 부여되어 왔다(강수택, 2000). 예컨대 사이드(Said, 1994)는 지식인을 “일반대중을 위해서, 일반대중을 향해서, 메시지, 관점, 태도, 철학, 여론을 재현하고, 구체화하고, 표명하는 재능을 지닌 개인”으로 규정하면서 이들에게 정부나 기업에 포섭되지 않고, 보편적 원칙의 토대 위에서 자유와 정의를 위해 용기 있게 검증하고 투쟁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푸레디(Furedi, 2004)의 ‘그 많던 지식인은 어디로 갔는가’라는 탄식에서 볼 수 있듯이 오늘날 이러한 계몽운동의 후예들을 찾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그렇다면 인터넷의 변성은 지식인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공공 지식인(public intellectual)’의 운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드레즈

너(Drezner, 2009)와 같은 이는 블로그,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전문직 회를 통해 상아탑에 갇혀 버린 학자들이 공공 지식인으로 거듭날 가능성에 주목한다. 그는 특히 이러한 인터넷 매체들이 학문간 경계와 위계를 넘어서는 지식 네트워크들을 형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일반 시민들과의 소통을 촉진시켜 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반대로, 인터넷 지식생산 체계를 설명하는 지배적 개념이 되어가고 있는 협업적 ‘집단지성’ 모델은 모든 이들이 지식 생산에 참여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가정함으로써 전문가-비전문가의 차이와 위계에 기반을 두는 ‘지식인’의 공적인 역할에 대한 기대 자체를 약화시킨다.

미네르바 신드롬은 이러한 시나리오들과는 전혀 다른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것은 인터넷 지식 공동체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인정을 통해 지식생산의 권한과 권위를 부여받을 새로운 ‘지식인’, 즉 ‘시민지성’이 등장할 가능성이다. 지식체계는 항상 지식 공동체의 ‘합의’(마동훈, 2011)를 요구하며, 우리가 ‘진실’이나 ‘객관적 지식’으로 여기는 것들은 사실상 진실들이 논쟁되고 의견들이 만들어지는 사회적 소통 과정의 산물이다(Tredinnick, 2008). 인쇄술과 함께 성장한 근대적 지식체계 내에서 지식생산 과정에 대한 참여는 교육제도의 공인을 받은 소수의 전문가와 지식인, 엘리트집단에 한정되었다. 인터넷은 이러한 과정을 보통 사람들에게 개방하며 그들의 가치들, 열망들, 세계관들, 사회적 맥락들이 지식 생산에, 무엇이 진실이고 어떤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쟁에 개입하도록 허용한다.

전통적인 지식체계의 합리성과 총체적 지도그리기, 동료 시민들에 대한 연민과 애정, 현실적인 생존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지식으로 무장한 미네르바의 성공은 상존하는 경제적 불확실성의 시기에 이러한 ‘인정’의 체계가 지식과 지식인에 관해 어떠한 조건들을 함축하는가를 단편적으로나마 예시해 준다. 아울러 그가 구사했던 글쓰기 스타일과 비판적 지식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인터넷 지식생산체계에서 새롭게 생성되고 있는 담론의 질서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

3년이 흘렀지만 경제위기의 그림자는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 짙

게 드리워져 있고 인터넷에는 이 난국의 원인에 대한 타당한 설명과 명확한 행동지침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넘쳐난다. 그 고단한 삶의 경험들이 직조해 내는 것은 무기력한 절망과 맹목적인 분노일까, 아니면 보다 나은 미래를 버려나갈 뼈아픈 자각과 혜안일까. 수많은 이야기들과 관점들이 충돌하면서 만들어내는 탁류로 깊이조차 가늠할 수 없는 인터넷 담론들의 바다에서 일개 연구자가 조망할 수 있는 부분은 안타까울 정도로 적다. 그리고 언제나 그러하듯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황혼이 물든 뒤에야 날개를 펼 것이다.

참고문헌

- 강수택 (2000). 근대, 탈근대, 지식인. 『한국사회학』, 34집, 507~529.
- 김덕모 (1998. 1). ‘위기 저널리즘’ 아닌 ‘위기 초래 저널리즘’: 경제위기 관련 기사 보도 검증. 『신문과 방송』, 49~53.
- 김동춘 (1998). 한국의 지식인들은 왜 오늘의 위기를 읽지 못했는가. 『경제와 사회』, 37호, 160~178.
- 김문조 (2008). 『한국사회의 양극화: '97년 외환위기와 사회불평등』. 파주: 집문당.
- 김상배 (2010). 집합지성보다는 공동체?: 한국사의 맥락에서 본 인터넷 문화의 특징.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7권 4호, 45~92.
- 김종영 (2011). 대항지식의 구성: 미 쇠퇴기 수입반대 촛불운동에서의 전문가들의 혼성적 연대와 대항논리의 형성. 『한국사회학』, 45집 1호, 109~153.
- 김창남 (2010). 『대중문화의 이해』. 파주: 한울.
- 마동훈 (2011). 네트워크 시대의 지식생산 패러다임. 한국언론학회 주최 ‘기획연구II: 한국 사회의 디지털 미디어와 문화’ 세미나 발표집, 233~254.
- 민경배 (2004). 사이버 공간의 논객과 폐인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 한국사회학회 주최 2004년도 한국사회학회 전기사회학대회 발표집, 63~70
- 손호철 (1998). 위기의 한국, 위기의 사회과학. 『경제와 사회』, 37호, 143~159.
- 송호근 (1998). 『또 하나의 기적을 향한 짧은 시련: IMF 사태를 겪는 한 지식인의 변명』. 서울: 나남.
- 신광영 (2009). 세대, 계급과 불평등. 『경제와 사회』, 81호, 35~60.
- 안민호 (2009). 글로벌 경제 위기와 웹 2.0 시대 경제 위기 보도. 안민호 (편). 『디지털 시대 경제위기와 경제 위기 보도』(45~69쪽). 숙명여자대학교 언론정보학부·삼성언론재단 주최 2009 언론사 경제부장 세미나.
- 우지숙 (2009). 진실과 허위 사이: 허위(일 수도 있는) 사실의 표현을 위한 항변. 『경제규제와 법』, 2권 1호, 194~197.
- 윤상우 (2009).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화: 국가의 성격 변화와 정책 대응을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83호, 40~68.

- 윤용호 (1998.1). 외환위기, 앵무새 언론도 한몫: 경제보도와 국가이익. 『신문과 방송』, 44~48.
- 이기형 (2004. 3). 인터넷 정치 웹진과 논객 사이트 읽기. 『신문과 방송』, 174~179.
- 이상봉 (2011). 경제 불평등 구조 분석: 계급, 지역 및 연령집단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5집 2호, 25~57.
- 이준웅 (2007). 관계형 매체 증가와 사회적 의사소통양식의 변화. 정운찬 조홍식 (편). 『외환위기 10년 한국사회 얼마나 달라졌나』(321~376).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준웅 (2009). 인터넷 공론장의 매개된 상호가시성과 담론 공중의 형성. 『언론정보연구』, 46권 2호, 5~32.
- 이항우 (2009). 네트워크 사회의 집단지성과 권위. 『경제와 사회』, 84호, 278~303.
- 이현훈 (2000). 97년 외환위기의 원인 규명을 위한 총체적 접근. 『한국경제연구』, 5권, 145~174.
- 장우영 (2005). 온라인 저널리즘의 정치적 동학: ‘논객 사이트’를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13권 2호, 157~188.
- 전상인 (1998). 세기말 한국의 지식인 담론 및 지식인 사회에 대한 비판적 성찰. 『비교사회』, 3호, 12~44.
- 정진영 (2000). 외환위기 대응의 논리와 정치경제적 효과: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경제와 사회』, 45호, 66~89.
- 홍성태 (1999). 자본주의 ‘지식사회’와 ‘신지식인’론 비판. 『문화과학』, 19호, 31~50.
- 황주성·최서영 (2010). 집합지성의 유형에 따른 참여자 특성분석: 위키백과와 지식 iN에 대한 한미 비교연구.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7권 4호, 257~301.
- Bauman, Z. (1998). *Globalization: The human consequences*. 김동택 (역) (2003). 『지구화, 야누스의 두 얼굴』. 파주: 한길사.
- Bauman, Z. (2007). *Liquid times: Living in an age of uncertainty*. 한상석 (역) (2010). 『모두스 비벤디: 유동하는 세계의 지옥과 유토피아』. 서울: 후마니타스.
- Chiapello, E., & Fairclough, N. (2002). Understanding the new management ideology: a transdisciplinary contribution form critical discourse analysis and new sociology of capitalism. *Discourse & Society*, 13(2),

185~208.

- Drezner, D. W. (2009). Public intellectuals 2.1. *Society*, 46(1), 49~54.
- Fairclough, N. (1995). *Media discourse*. London; New York: Edward Arnold.
- Fairclough, N. (2003). *Analysing discourse: Textual analysis for social research*. London: New York: Routledge.
- Furedi, F. (2004). *Where have all the intellectuals gone*. 정병선 (역) (2005). 『그 많던 지식인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21세기의 무교양주의에 맞서다』. 서울: 청어람미디어.
- Hartelius, E. J. (2010). Wikipedia and the emergence of dialogic expertise. *Southern Communication Journal*, 75(5), 505~526.
- Lash, S. (2002). *Critique of information*. London: Sage.
- Lévy, P. (1995). *L'intelligence collective: Pour une anthropologie du cyberspace*. Paris: Éditions La Découverte. R. Bononno (trans.) (1997). *Collective intelligence: Mankind's emerging world in cyberspace*. New York: Plenum Press.
- Poster, M. (2001). *What's the matter with the internet*. Minneapolis, MN: university of Mennesota Press.
- Said, E. (1994). *Representations of the intellectual*. New York: Pantheon Books.
- Tredinnick, L. (2008). *Digital information culture: The individual and society in the digital age*. Oxford, England: Chandos Publishing.

최초 투고일 • 2011.12.30
논문 수정일 • 2012.02.02
게재 확정일 • 2012.02.03